

한솔케미언스, 한솔케미칼로 재도약

제지약품 · 화학업종 이미지 강화 ... 전자소재 · 특수케미칼 진출 선언

한솔케미언스가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기업 재도약을 위해 사명을 한솔케미칼로 변경했다.

한솔케미언스 관계자는 4월20일 “기존 사명이 회사의 업종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주주와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업분야 확장 등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선포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한솔케미칼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수익성 확충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 2008년에는 매출액 3000억원, 경상이익 3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점착 라텍스(인쇄용지 코팅제)를 개발해 고수익 시장인 일본수출을 늘리고 과산화수소 신축매 기술을 정착시켜 원가절감을 꾀하는 한편, 전자 소재, 특수케미칼, 환경 분야에도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한솔케미칼은 2004년 1/4분기 매출액 366억원, 영업이익 31억원, 경상이익 34억원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화학저널 2004/04/21>